

책읽기의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지 말자

차정인 | 북아티스트 · 한국예술종합학교 강사

독서를 권장하는 문구들이 큼지막하게 걸린 것이 자주 눈에 띄니 이제 또 가을이 됐나 보다. 모두 책읽기를 즐겨한다면 시시때때로, 혹은 유난히 가을에 이렇듯 큰 소리로 '독서'를 강조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책을 가까이 하는 습관은 어느 날 갑자기 '하자'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님은 누구나 알고 있다. 좋은 버릇은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길러지는 것이고 책읽기도 그렇다. 책을 대하는 태도, 무슨 책을 좋아하고 어떤 태도로 읽는가도 마찬가지다.

1996부터 1998년까지 영국에서 살 기회가 있었다. 아이들은 가까운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고르고 빌려 보는 것을 무척 좋아했다. 조용하고 아담한 그 도서관은 아이들 걸음으로 10분이 넘지 않는 거리에 있었고, 아이들 책 서가는 특히 잘 꾸며져 있었다.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초등학교 저학년인 둘째 아이가 "내가 가고 싶을 때마다 혼자 걸어갈 수 있는 도서관이 있으면 좋겠어"라고 말할 때마다 미안했다. 바쁘다는 핑계로 차를 타야 갈 수 있는 도서관에 데리고 가는 열성을 발휘할 수 없었고, 그렇다고 보고 싶다는 책을 양껏 사

주는 편도 아니었으니...

교육열 높은 부모들은 아주 일찍부터 아이들 손에 책을 쥐어준다. 아이들이 책 욕심을 부리면 아주 뿌듯해하고 지능, 인성, 감성 등 모든 면에서 아이의 미래를 희망으로 채색한다. 그러나 아이들이 커갈수록 현실은 이상과 멀어진다. 지혜를 얻고 감성을 풍부하게 하는 책 대신 교과서와 참고서, 문제집이 자리를 차지한다. 그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고 삶에 지혜를 주는 책도 읽기를 바라는 한편, 책 읽기에 빠져 학과공부가 부진하고 입시경쟁에 뒤질 것을 두려워하는 모순된 기준에 혼란스러워한다. 아이들 역시 그런 입시위주의 책에 대한 지극지극함이 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이어지는 것 같다.

도서관은 드물고 멀다.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한 곳에 대한 인구수는 11만5천273명으로 OECD회원국 가운데 최하위라고 한다. 예산편성도 공공도서관의 디지털자료실 설치를 위해서 1600억원을 쓰면서 도서확보를 위한 예산은 52억원에 불과하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책읽기를 외면하는 분위기 속에서 가을마다 독서의 계절이라는 표어를 내거는 일쯤으로 책 읽을 면할 수 있을까? 정치적으로 우민화(愚民化)의 저의가 의심되는 것은 비약일까?

책을 읽지 않는 분위기를 개인의 지적 호기심 부족이나 게으름탓만으로 돌릴 수 있는지 생각해보면, 경쟁과 속도위주라는 사회문제가 보인다. 또 아이들 책읽기의 책임을 부모 개개인에게만 돌려서도 안된다. 아이들이 지혜로운 성인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는 기본적인 부문에 관심을 쏟고 구체적인 체제를 갖추는 것은 사회가 먼저 나서야 할 미래에 대한 중요한 투자다. 동네 주민들이 언제든 마음 편하게 찾아갈 수 있는 작지만 알찬 도서관을 마련하는 일이 정말 무리일까? 아이들이 가까운 도서관을 찾아 책읽기를 즐기게 돼도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는 외침이 필요할까? ■

통권 제311호 | 2001년 10월 20일 발행

발행인 ————— 김낙준

편집이사 ————— 임홍조

편집자문 ————— 김정란 이정우 임지현

편집장 ————— 박천홍

기자 ————— 강성민 김장근

차정신 박옥순

사진 ————— 김경록

편집디자인 ————— 정병규디자인 | 안지미

박기아

업무부장 ————— 윤동호

업무·광고 ————— 이희천 김동필 천창환

등록 ————— 1987년 6월 9일 - 다 435

발행처 ————— (재)한국출판금고

732-1434 · 5

인쇄처 ————— 평화당인쇄주식회사

이일수

출판저널 ————— 110 - 190

서울 종로구 사간동 105-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 732 - 1431 · 2 | 편집

732 - 1433 | 업무 · 정기구독문의

FAX ————— 722 - 1174

E-mail ————— book732@chollian.net

하이텔 ————— chulpan

천리안 ————— book732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

윤리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정기구독 안내

매월 5일과 20일자로 발간되는 《출판저널》은

정기구독으로 받아 보시는 것이

빠르고 편합니다.

본사의 지로용지로 1년치 구독료 40,000원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맥이나

사무실로 우송해드립니다. 본사의 지로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수협·축협

포함)의 A지로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하여 붙임하거나

국민은행 계좌번호 023 - 01 - 0219 - 936

(예금주:출판저널)을 이용하십시오.

공급 |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